

“전력·전기산업 전문 창업투자조합 결성 등 전력IT사업 추진계획 마련”

- 전력IT 연구개발 지원, 전력IT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 -

■ 전력·전기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조합 결성계획 등 금년도 「전력 IT 사업」의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산업자원부는 2월 20일, 정부와 전력·전기분야 산·학·연 CEO급으로 구성된 「전력IT 추진위원회」(위원장:이원걸 산자부 차관)를 개최하여,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력IT 사업은 첨단 IT기술등을 전력산업에 접목하여, 기존 전력시스템을 지능화하고, 전력·전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력·전기산업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이번에 마련된 전력IT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비롯하여, ▲전력IT 연구개발 추진, ▲전력IT 인력양성센터 설립, ▲전력IT 표준화 사업, ▲전력선통신(PLC)사업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전력·전기분야 전문 창업투자조합은 3월에 운영주체인 창업투자회사를 공모하여, 상반기내에 최종 운용주체를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조합은 정부, 전력분야 공기업, 민간기관 등이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개 창투자조합이 각 200억원씩 운영하게 된다.

■ 또한, 전력IT분야의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력IT 인력양성센터」를 금년내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 민간에서 4년간 총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대학(원) 과정에 맞는 전력IT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착수된 9대 핵심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5년여간 2,50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관리하고, 금년에도 관련 전문가의 연구기획과 산업체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력IT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전력선통신(PLC)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전력선을 이용하여 무인 원격검침과 인터넷서비스 등을 성공적으로 시험하였으며, 무인 원격검침은 시험결과, 성능이 우수하여 금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이날 오후에는 전력·전기분야 3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력IT 컨퍼런스 2006」행사가 개최되어, 전력IT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 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참여자들을 전력IT 사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력·전기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제4회 전력시장워크숍 개최

제 4회 전력시장 워크숍(Electricity Market Workshop)이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련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기초전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양평 한화 리조트에서 개최됐으며, 김신중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수훈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승훈 前전기위원회 위원장, 남정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을 비롯한 학계, 연구계 인사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회사, 민간발전회사 관계자 등 각계각층



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축사에서 김신중 국장은 “아직 시장경쟁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하여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6개 발전사들은 경쟁적으로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고 평가하고 “새해 전기위원회는 전력의 안정공급이라는 바탕위에서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의 합리적인 추진과 현 발전 경쟁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시장의 동향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송전혼잡비용 처리 방법론 비교(전영환 박사, 기초연) ▲전력시장 환경에서 계통계획과 송전요금(오태규 박사, 전기연) ▲CBP시장의 가격 메카니즘 개선방향(김성수 박사, 산업기술대) ▲북미시장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우 박사, 에경연) ▲CBP시장의 법적/경제적 검토(김용완 팀장, 전력거래소) ▲CBP시장에서의 지역적 상호제공방안(박종배 박사, 전력산업연구회)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둘째날에는 북미시장의 동향과 우리나라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김발호 교수(전력사업연구회) ▲장동우 사무관(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 ▲김광인 팀장(전력거래소) ▲김상운 팀장(한국전력공사) ▲최병기 팀장(남부발전)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전요금 등 계통운영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송전서비스 강화 및 가격체계의 효율적,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후로 4

회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특히, 현재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할 계획이 있는 민간 발전회사도 대거 참여해 전력 시장 및 거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연료가격 상승영향으로 韓電, 2005년도 당기순이익 2조 4,486억원 시현

- 전년대비 4,322억원 감소 -

■ 전력판매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대비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LNG·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등으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322억원이 감소한 2조 4,486억원을 시현했다.

• 당기순이익: 15.0% 감소(28,808('04)→24,486억원('05))

• 영업 이익: 32.8% 감소(19,731('04)→13,259억원('05))

■ 영업이익은 구입전력비, 감가상각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6,472억원이 감소 되었다.

• 구입전력비 증가분이 전기판매수익 증가분 초과

- 전기판매수익은 2004.3.1부 전기요금 1.5% 인하 영향으로 전력판매단가가 0.2% 하락하여 전년대비 1조 4,838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23조 2,448억원('04) → 24조 7,286억원('05)) 구입전력비는 중유, LNG, 유연탄 등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조 7,775억원 증가(16조 7,662억원('04)→ 18조 5,437억원('05))

• 또한 설비증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1,652억원 증가

- 감가상각비: 1조 6,858억원('04) → 1조 8,510억원('05)

■ 영업외이익은 외화평가이익 감소,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606억원이 감소 되었다.

- 외화평가이익은 외화차입금 감소와 환율하락폭 축소영향으로 전년대비 3,807억원 감소 (6,166억원('04) → 2,359억원('05))

- 외화차입금: 36.0억U\$('04말) → 23.6억U\$('05말)

- 연말 환율: 1043.8원/U\$('04말) → 1013.0원/U\$('05말)

- 지분법이익은 발전자회사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84억원 증가 (1조 7,938억원('04) → 1조 9,122억원('05))

- 이자비용은 신규차입금 감소, 금리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900억원 감소 (5,630억원('04) → 4,730억원('05))

■ 법인세비용은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3,756억원 감소 되었다. (1조 1,080억원('04) → 7,324억원('05))

- 법인세율 : 29.7%('04) → 27.5%('05)

월성 원전 3호기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종재) 월성원자력본부 3호기가 2004년 12월 18일부터 2006년 2월 4일까지 414일 동안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 One Cycle Trouble Free)을 달성하고, 2006년 2월 4일 09시 정각에 발전을 정지하고 제6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월성원자력 3호기는 지난 한주기 동안 약 72억k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유연탄 262만톤 또는 중유 1,069만 배럴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이다. 제2발전소장 부임 후 이번에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한 황민영 소장은 “월성 3호기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은 직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부터 제6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원자력 3호기는 원자력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각종 기기의 성능점검 및 설비 개선 작업을 마친 후 오는 2월 24일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 중소기업과 상생경영 박차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은 보령화력 6호기 탈질설비에 적용된 국산 탈질촉매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고 2월 16일 밝혔다.

탈질촉매는 발전소, 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화 물로 환원시켜 제거하는 환경오염 방지 핵심물질로 이제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외국사들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중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대용량 발전소인 보령화력 6호기에 중소벤처기업(주)나노가 생산한 신기술인증 탈질촉매를 사용해 소산화물 배출농도가 30ppm이하로 배출되는 성능결과를 거둬 인증탈질촉매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탈질촉매는 국내 촉매시장에서 6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와 환경보전 및 유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기술인증 중소기업제품 채택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동서발전, 에너지절약 활동 ‘성공적’

- ‘VESA 2005’ 추진 결과 지난해 에너지 절감액 190억여원에 달해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추진해 온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활동인 ‘VESA(Voluntary Energy Saving Action) 2005’가 큰 효과를 거뒀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열효율 향상과 연료비용 절감, 소내전력 절감 분야 등 102개 항목에 걸친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전개해 총 11,3만TOE(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절감으로 19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일부 추진항목 시행 계획이 수정되는 등 에너지 절감효과 감소요인도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 업무를 추가 발굴한 결과 오히려 2005년도 에너지절감 목표량 80,550TOE 보다 40.2%를 초과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열효율 향상 분야 81억, 소내전력 절감 분야 47억, 연료비용 절감 분야 59억, 기타분야에서 3억여원을 각각 절감했다. 그 중 석탄화력설비 연소관리 최적화 등 28개 항목에 걸쳐 45,778TOE를 절감한 열효율 향상 분야가 41%로 에너지 절감 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한편, 6개 사업소 모두가 당초 에너지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해 자발적 에너지절약 활동이 전사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런 성과는 포상으로 공인받았다. 동서발전은 작년 11월 제 21회 경향전기에너지대상에서 발전부문 국무총리상(당진화력), 산자부장관상(호남화력)을 수상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런 기업활동”이라며,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문화가 전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동서발전은 중기 에너지절약계획 ‘VESA-2010’을 수립하고 시행해 명실상부한 에너지관리 ‘Leading Company’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고효율 운영체제 구축, 관련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제2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 국내최고 권위, 경제 5단체 공동수여 -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투명경영대상"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투명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신뢰성 확보와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국내 유일의 최고경영대상이다. 제2회 투명경영대상 대상은 포스코가 수상하였으며 한진해운과 동부화재가 우리 회사와 함께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중신 사장은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행사중 가진 시상식후 기자 회견에서 "한국서부발전이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수여 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 잘하라는 격려와 체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로서 연륜은 짧지만 지속발전가능기업이 되기 위하여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서 더욱 값진 영예로 생각하고 서부발전 임직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회계, 환경 등에 있어서는 법과 사회가 요구하

는 수준이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도 한발 앞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투명경영대상은 상장기업 및 공기업 등 국내 주요 1,950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투명성, 노사안정성, 사회공헌성, 환경친화성의 4개 분야를 종합평가하는데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심사 등 4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쳤다. 최종 심사위원은 진념 전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송병락 서울대 교수, 박인상 한국노동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강기원 한국여성경영자협회 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배병휴 월간풍월 대표발행인 등 각계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경영대상임을 실감케 했다.

서부발전은 Clean, Competitive, Companion의 3C 경영철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시경영혁신을 추진하며,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윤리만족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중심 제도개선에 앞장서 온 한편, 노사가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훌륭한 일터(Great Work Place)를 만들어 구성원의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남부발전, 2006 중소기업지원 우수성공사례 발표회 가져

- 우수성공사례는 하동화력, 협력연구개발 성공사례는 하나에버텍과 AVT사가 발표 -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은 지난 2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원 및 중소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중소기업지원 우수성공사례 발표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하동화력은 해룡화학과 공동으로 탈수폐수처리장 스케일 생성 억제 및 용해제를 개발 등 현장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우수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체인 하나에버텍은 "Coal Flow 측정시스템 개발"을, AVT사는 "지진저감진동장치"에 대한협력연구개발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우수성공사례발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개발제품의 적극적인 사업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2006년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2006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계획 설명, 우수성공사례 및 협력연구개발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지원 정책방향 및 혁신방안에 대한 초청강사 특강,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南電은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Win-Win하고자 협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판로지원, 신기술 연구개발금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 정책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은 2월 16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박희갑 사장을 대신하여 기술본부장(남호기)은 앞으로 1년간 남동발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에게 위촉장 및 위촉패를 수여하였다.

이날 기술본부장과 자문위원은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특히 협력업체들이 우리 회사에 평소 건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기술본부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 기술, 판로”라고 말하며 자문위원이 정부정책 토론회 및 평가회 등 참석시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대중공업, 두바이 국제전기전 2006 참가

- ▶ 전세계 40여개국 700여개 업체에서 참가
- ▶ 중동지역 시장점유율 확대 및 제품인지도 향상 기대



두바이 전시장 현대중공업 부스 전경

현대중공업(사장 최길선)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국제전기전 (Middle East Electricity 2006)”에 참가하였다.

두바이 국제전기전은 세계 40여개국의 7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의 전기분야 전시회로서 전세계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 현대중공업은 중저압차단기, 인버터 그리고 HIMAP(디지털보호계전기)의 실물제품 및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등 그래픽을 전시하여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중동 시장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대형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발주되는 추세이며 현대중공업도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중동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제품인지도도를 더욱 높여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산전-롯데정보통신 RFID분야 사업제휴

■ RFID분야 사업발굴 및 수행에 공동 대응하는 사업제휴 체결

- 롯데정보통신은 RFID 제품 구매시 LS산전에게 최우선 지위 부여
- LS산전은 롯데정보통신에게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공급

■ 롯데정보통신은 RFID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육성키로

- 물류, 유통 관련 RFID 연구실 구축, RFID사업 추진기반 확보 예정

■ LS산전은 RFID 토털솔루션 제공으로 올해 약 200억 원 매출 예상

롯데정보통신(대표:吳京洙 www.ldcc.co.kr <http://www.ldcc.co.kr/>)과 LS산전(대표: 金正萬 www.lsis.biz <http://www.lsis.biz/>)은 2월 16일 서울 LS산전 본사에서 RFID 사업제휴를 체결, RFID사업 강화에 나섰다.

롯데정보통신 오경수 사장과 LS산전 김정만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사업제휴는 양사가 향후 RFID분야에서 사업발굴 및 수행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은 RFID와 관련한 서비스 및 하드웨어 제품 구매시 LS산전에게 최우선의 협력업체 지위를 부여하며, LS산전은 롯데정보통신에게 RFID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현재 LS산전과는 약 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업제휴로 양사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수행해 나갈 것" 이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롯데정보통신은 RFID 미들웨어(Middleware)의 자체 개발 등을 통해 RFID분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S/W & Service)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정보기술연구소에 물류, 유통 관련 RFID 연구실을 구축하여 RFID 기술 검증과 향후 대내외 활발한 RFID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LS산전 관계자는 "지난 해 천안공장에 리더기 양산라인 및 성능테스트센터를 갖추었고 이달 말에 RFID 태그 양산라인을 준공하게 되면 LS산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RFID의 완벽한 생산체제를 구축한 업체가 되어 RFID 하드웨어 부분에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며 "이러한 LS산전의 RFID 토털 솔루션과 롯데정보통신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및 물류, 유통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이 어우러지면 RFID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롯데정보통신은 RFID TOP SI 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대내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그 관련 설비에 대해 향후 2~3년내 약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LS산전은 올해 RFID사업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국내외 발전소 개보수 공사 수주 '활발'

- 영광원전 1,2호기 터빈교체공사 수주 -

- 2002년 이후 40여기 공사 성공적 수행, 해외에서도 기술력 인정 -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국내외 노후 발전소 개보수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면서 선진 외국 발전설비 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영광원전 1,2호기 고압

터빈 성능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이 공사는 가동된 지 20년 된 영광 원전 1,2호기 고압터빈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출력을 기존 996MW에서 1,046MW로 높이는 공사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공사에서 영광 원전 1,2호기 터빈발전기의 원청공급사인 독일 지멘스(Siemens)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이미 이 발전소의 발전기 교체공사를 수주했던 두산중공업은 이번 터빈 개보수 공사 수주로 영광 1,2호기의 터빈 발전기 성능 개선 공사를 일괄 수행하게 됐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해외 개보수 사업에서도 활발한 공사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호주 에라링(Eraring) 발전소와 이스라엘 MD-A 2~4호기, 하지트(Hagit), 알론 타보르(Alon tavor) 발전소 등의 발전기 개보수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MD-A 1호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스라엘 전력청에서는 MD-A발전소의 성공적 수행을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 서한을 지난 연말 두산중공업에 보냈었다.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소 개보수 시장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울진원전 1,2호기 주발전기 재권선공사를 시작으로 고리원전 1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서인천북화력 3~8호기, 울산화력 5호기 등 국내외에서 40여기의 터빈 발전기 성능개선 및 개보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 (발전BG장)은 “발전소 성능개선 공사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선진 업체가 거의 독점해왔지만 두산중공업이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고 말하고, “노후 발전소 성능 개선 및 개보수 공사도 향후 중점 사업 중의 하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 4월 1일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리공사는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산업자원부 산하 12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 부분 출금제 시행, 공기업 최초로 공급약관에 고객정보 보호조항 신설, 공공용 열요금 적용 범위 확대 등 고객의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고객 중심의 영업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공동주택 내 사용자 소유 배관에 대한 수질검사, 고객설비 정밀진단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고객 소유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등 고객행복의 가치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05년도에 고객만족경영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공사의 고객만족수준을 진단하고, 고객만족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고객만족활동을 추진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발로 뛰고 마음으로 듣는 현장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